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3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행동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에스더서 강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에 4:1-17)

Before the Great Threat

(Esth 4:1-17)

하나님의 대적 하만이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열두째 달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이제 유다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 모르드개는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1절). 그렇다고 울면서 신세타령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3절). 그리고 이 일을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급히 알렸습니다.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심령을 쏟아놓으며 기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오직 기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고, 온 백성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13-14절).

에스더는 자기를 포함해서 온 백성들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갈 것이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16절).

구원을 얻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특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들만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14:13-14).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기도를 통해서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 8:17).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간절한 기도를 원합니다. 모르드개와 같이, 한나와 느헤미야와 같이, 또한 히스기야 왕과 같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God's great enemy, Haman issued an edict sealed by King's ring, "on the thirteenth day, the twelfth month of Adar to destroy, kill, annihilate all the Jews including young and old, women and little children to all the provinces, and plunder their goods."

And now, all the Jews would die. Mordecai wailed loudly and bitterly before the great threat of Haman (v. 1). However, he not only wailed loudly and bitterly but also began to pray to God with the people (v. 3). And this situation was given to Esther immediately.

Mordecai emphasized that Esther and all the Jews should pray to God sincerely and open-heartedly because he knew that only prayer is a way to be saved and he was sure that if all the Jews prayed together sincerely, they should undoubtedly be saved.

"Mordecai sent back this answers: 'Do not think that because you are in the King's house you will escape. For if you remain silent at this time, relief and deliverance for the Jews will arise from another place, but you and your father's family will perish. And who knows that you have come to royal position for such a time as this?'" (Esth 4:13-14)

Esther said, "After all the Jews including herself will fast and pray for three days, we will go to the king, by saying if I perish, I perish" (v. 16).

The most privileged people who were saved are able to pray to God. No one can pray to God whenever or whatever he wants. Only those who can call God "Father" have the wonderful privilege of prayer.

"And I will do whatever you ask in my name, so that the Son may bring glory to the Father.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John 14: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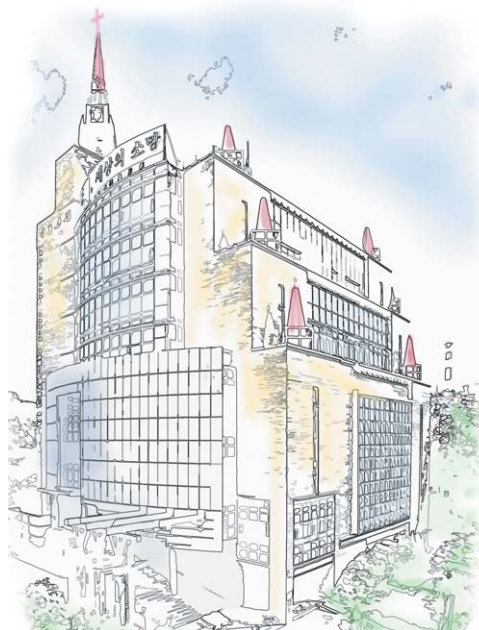
The prayer is the closest relationship of love which we can share with God. God's promise will undoubtedly be achieved. However, He wants to have a deep and wonderful relationship with love through the prayers by His children.

My beloved Christians,

"I love those who love me, and those who seek me find me" (Prov 8:17).

God wants the sincere prayer that focuses on God.

By praying to God like Mordecai, Hannah and Nehemiah, and King Hezekiah with a sincere faith, I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get the wonderful and great answer from God.





한금의 권사



조옥순 권사



김현주 권사



김종리 권사

노약자 심방을 마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정수길 목사(교구지도)

박노철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서울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서도 특별히 해마다 연초에 실시하는 노약자심방(70세 이상 되시고 1년 이상 교회에 못 나오신 어르신들 대상)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노약자심방을 통해서 그동안 주의 몸된 서울교회를 위해 쏟으신 어르신들의 헌신과 기도의 땀방울을 말씀과 기도로 닦아드리고 위로해드리는 일이야말로 더없이 소중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에도 담임목사님께서 심방하신 곳곳마다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졌습니다. 비록 육신은 쇠하여져 가지만, 장차 들어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종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드리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전도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 3:11a). 교회를 위해 모든 열정을 다 쏟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노종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3 노약자 심방은 지난 1월 8일 부터 2월 8일까지 한달간 18가정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김동호 권사



윤영자 권사



박래원 집사



송순옥 권사



김은애 권사



송갑순 권사



박순옥 권사



노영숙 권사



이민화 권사



이수자 권사



김진숙 권사



유명중 집사




최정숙 권사



김순남 집사

사순절의 기도

주님 왜 우십니까?



이중윤 원로목사

21세기 현대도시에 마천루가 우람하게 솟아있고
 질주하는 자동차의 물결과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여 초인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
 현대사회를 보시면서
 황홀감에 찬 인간만세를 불러주셔야 할 자리에서
 주님 왜 울고 계십니까?

유럽에는 캐서디털(대성당)이 텅텅 비어 있는데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들은
 예배자의 수가 넘쳐
 몇차례의 예배시간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과 사랑을 해 주셔야 할 자리에서
 주님 왜 울고 계십니까?

주님이 울고 계신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목사와 신도의 신뢰도가
 탁발승이나 불제자보다도
 훨씬 낮다는 통계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오늘의 현실이 어찌 안타깝지 않으시겠습니까?
 종교개혁 이래 가장 부패한 교회라는 오명을 쓰고도
 거드름만 피우고 있는 지금
 사대교회처럼 살았다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나이다.

먹을 것을 얻고 병고침을 받으며
 높은 자리를 좋아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으나
 주님의 십자가를 질 제자는 많지 않은가 봅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눈에 다시 눈물을 흘리시게 했고
 주님을 못박혀 죽게 한 가룟유다가 '내니이다' 라고
 무릎꿇고 자백합니다.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쫓기 위해
 이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참제자로 이 계절에 우리를 소생시켜 주소서.

유아부 겨울성경학교 초대이 글




작은 자들의 친구

구본예 전도사(유아부 지도)

유아부 겨울성경학교가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될래요' 라는 주제로 2월 24일(주)-26일(화)에 교회(706호)에서 진행됩니다. 24일(주)에는 평소와 같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25일(월)-26일(화)에는 오전 10:30~오후 2:00까지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유아부에서는 귀한 주님의 어린이들이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시기인 유아시절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생동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3년 겨울성경학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교회에서 보낸 행복한 시간의 기억들이 저장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유치부 겨울성경학교 초대이 글

작은 이들의 친구

서울교회 유치부(6세~7세)에서는 "작은 이들의 친구" 라는 주제로 2월 24일~26일 겨울성경학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아빠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이런 공동체 생활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과도 친해지면서 적응해 가기도 합니다.

"준비~됐나요 ♪" 라는 제목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 공부시간과 찬양·울동 배우기를 통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좀더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친숙해지기 위해 성경구절이 들어간 나무 목걸이 만들기 시간이 있고요, 또 나만의 화분 꾸미기 시간을 통해서는 자신이 돌봐줘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당나귀' '세나무이야기' '노란샌들' 이라는 3편의 구연동화를 통해 이번 겨울성경학교의 감동이 가슴속 깊이 새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말씀과 더불어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년부 겨울성경학교 초대이 글

미래의 지도자문!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몸보다 더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보다 공부가, 학원이 더 중요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아빠~ 엄마~ 부르듯이 똑같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유년부(초 1,2,3학년)에서는 겨울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서울교회 701호에서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성경말씀을 공부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는 좋은 친구입니다!" 라는 주제로 또래 아이들과 합심하여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서울교회와 세계의 리더로 우뚝 설 성도님들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교회 유년부 겨울성경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부겨울수련회 초대이글

크리스찬, 작은자들의 벗!



박광욱 집사 (사랑부 부감)

24일(주) 사랑부 겨울수련회가 열립니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은 그 자체가 작은 자들입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 풍족하지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가기 위해서 매주 목사님과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성경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수련회에서는 우리 모두 말 씀과 율동과 레크레이션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거듭나 우리 보다 더 작은 자들의 벗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겨울수련회는 하루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보다도 더 약한 자들의 벗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동일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사랑부 겨울수련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농어촌100교회운동 후원자

성선규(김명식) 누계 148팀 12,300,000원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성선규(김명식) 이민화 강택근(정우선) 김승록(전미경) 노진아 추석우(박정애) 누계: 207명 15,130,000원

비전2020 운동 후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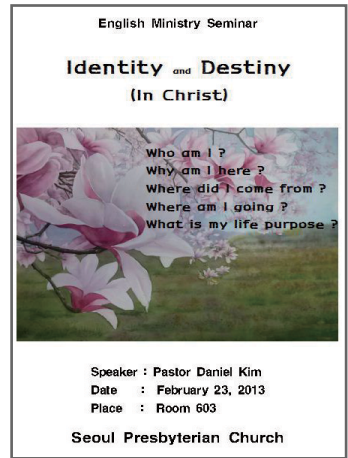
김민주 노진아 이양철 김미향 이성화 김재용 김재평 이민화 한경석 성선규(김명식) 누계: 개인 308명 기관 11개 4,780,000원

2013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3월4일(월)~5월12일(주), 10주간

서울교회 성도들과 이웃주민들을 위한 2013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일정이 확정되었다. 우리교회 열린프로그램들은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

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이웃주민들도 여가선용을 하며 깊이 있는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2차례 개강하고 있다. (수강료: 과목당 10,000 원)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시편반	월 오전 10:00-11:00	한상은 목사	602호
사무엘상 1반	금 오전 6:00-7:00	오세광 목사	602호
구약의 파노라마반	토 오후 8:00-9:00	장석남 목사	603호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황 광 목사	602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9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30-4:30	교역자 전체	607호
주부대학	화 오전 10:00-오후 1:00	한상은 목사	802호
살렘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전도학교	주일 오후 2:00-오후 3:50	배경애 전도사	903호
서울음악교실(10주간)	주일 오후 1:30-3:00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간)	주일 오후 12:40-1:40	한상은 목사	905호
수화교실 초급반(12주간)	주일 오후 12:50-1:50	임규현 목사	606호
중급반(12주간)	주일 오후 4:00-4:50	임규현 목사	606호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9일(화) 한국기독교학술원 연구교수정기모임을 소집한다. 21일(목)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22일(금)故 김상철 장로 기념사업회모임에 참석한다.
- 득녀: 10교구 윤준호 집사 권수정 집사
- 득남: 14교구 노창훈 집사 이화용 집사
- 주간식당봉사: 엘리야선교회(2.17) 모세선교회(2.24)
- 금주의 식사: 이길재 집사 유영숙 집사 가정 윤명구 집사 김영옥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13교구 주최 바자

-루치아노 최 / 롯데백화점 8층 행사장 -
18일(월)-21일(목), 4일간

13교구(지도: 장석남 목사, 교구장: 조정식 장로)에서 숙녀복 브랜드 루치아노 최와 함께 소외된 이웃 돕기 바자를 개최한다. 롯데백화점 강남점 8층 행사장에서 2월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4일간 계속된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통독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타이핑 2회 : (3교구) 박석현 집사
- 2독 : (12교구) 박명석 권사 (13교구) 양옥희 집사
- 1독 : (5교구) 김혜연 집사 (6교구) 김민철 집사, 최위춘 집사, 김혜진 성도, 황보주자 권사 (9교구) 이남성 집사 (10교구) 임훈규 장로 (16교구) 임송자 권사 (청년2부) 김진형 성도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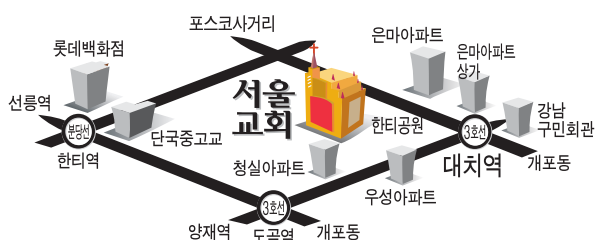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시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2. 24일(주일)부터 26일(화)까지 있게 될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영어예배부(23일), 사랑부(24일) 겨울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3. 4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2013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부서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	유년부	주일 오전 9시	701호
	II부	초등부	주일 오전 9시	601호
	III부	중등부	주일 오전 9시	501호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고등부	주일 오전 9시	101호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청년1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청년2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청년3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세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외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